

광양시 그린 인프라 확충 '도시녹화 10대 성과' 달성

미세먼지차단숲·생활밀착숲 등
2022년 108억원 들여 조성
정주환경 개선·탄소중립 실현



와우지구 경관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광양시가 2022년의 도시녹화 분야 10대 주요 성과를 선정했다. 시는 올 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도심 생활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차단숲,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그린숲, 경관녹지 벗꽃길, 명품 가로수 조성 등 예산 108억원을 들여 그린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그린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적극적인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3년도 도시녹화 분야 역대 최대 예산인 18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2022년도 본예산 58억원 대비 3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쾌거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90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70억원) ▲자녀안심그린숲(7억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등이다.

시는 도심 생활권의 다양한 숲 조성을 통해 민선 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는 데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철도 미세먼지차단숲은 산림청에서

으로 바뀌며 미세먼지를 차단함은 물론 탄소중립, 탄소저장, 탄소상쇄의 기능을 갖도록 추진된다.

2025년 완공되는 도시바람길숲도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021년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2025년 설계 1년, 시공 3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백운산, 가야산, 서산 등 산림에서 생성되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광양읍 권과 중마동 권의 도심으로 유입시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림과 단절된 도심권 숲을 연결하고, 중간 확산 디딤숲과 연계된 바람길 숲을 조성해 도시·생활공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성황천 견고 숲 벗꽃길 ▲생활밀착형숲 실의정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백운제경관숲 ▲명품가로수길 ▲자녀안심그린숲 ▲학교숲, 스마트기든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이 조성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돕고 있다.

김재복 광양시 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감동을 주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차단숲'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에 선정돼 기관 표창 수상 등 2021년 학교숲 조성 최우수 수상에 이어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6년 7월 폐철도가 된 후 오랜 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던 곳을 유당공원 내 분포하고 있는 이팝나무, 팽나무 등 전통 수종을 심어

차단숲과 전통수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세먼지차단숲 또한 도시녹화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광양만 산업단지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이 중마동 생활권에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와우택지지구 일원인 백운로와 청암로변에 40억원을 들여 4ha의 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은 앞으로 기후대응도시숲

구례 영농법인 그리울푸드 저소득 가정·경로당에 매실피클 3000kg 기탁

구례군이 최근 영농조합법인 그리울푸드와 함께 저소득 가정과 경로당에 매실피클 3000kg(3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영농조합법인 그리울푸드는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처리 중소기업으로 직접 제조 가공한 유기농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다.

이중현 그리울푸드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외로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LG화학과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 체결

우선채용 협약 18번째 기업
청년실업 해소·지역발전 협력

여수시는 지난 16일 LG화학(주재임원 운영훈)과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수시와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은 총 18곳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김신)의 적극적인 주재로 여러 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기명 시장과 운영훈 주재임원은 협약서에 따라 여수시의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기명(오른쪽) 여수시장과 운영훈 LG화학 주재임원.

이에 따라 LG화학은 신규 인력채용부터 지역민 우선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적극 반영하게 된다.

여수시는 더 많은 산단 기업들이 지역민 우선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산단 내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수한 지역 청년들이 LG화학에 더 많이 취업해 회사발전을 이끌어갈 바란다"며 "앞으로 LG화학이 여수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7년 이후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추진해 LG화학, GS칼텍스, 남해화학, 금호석유화학 등의 18개 여수산단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무본부장 chkim@



기독교역사박물관 내부모습.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성탄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매곡동에 소재한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이 23일까지 성탄맞이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산타 양말(가방) 만들기 및 참여자들이 랜턴을 들고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조명이 모두 꺼진 박물관을 관람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타 양말(가방) 만들기는 23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2회 운영되며 박물관 전시해설 투어는 22일과 23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다. 모든 프로그램의 회당 참여인원은 20명이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전화 접수이며, 전시해설 투어를 마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박물관에서 준비한 '선교사 랜턴'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순천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랑과 용서라는 성탄절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061-749-4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3개월간 휴장

내년 1월부터...4월 1일 개막 순천만정원박람회 대비 정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휴장에 들어간다.

순천시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3개월간 휴장 및 정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모든 입장이 제한된다.

2013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박람회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습지, 동천을 따라 도심까지 확장된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저류지를 정원화한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로 변신한 '그린아일랜드'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 스테이' ▲지구와의 접촉,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순천만 연안과 랍사르습지를 연결하는 '순천만 어싱길' ▲순천만습지의 새로운 탐방 동선인 '문학관 생태탐방로' ▲농경지의 새로운 변화 '경관정원'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도심에 있는 오천그린광장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화려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2013정원박람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관람객 앞에 선보이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 내년 4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최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생 축하 행사. 지난 13일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졸업식 'ATTENTION'이 열렸다. 행사는 올해 연도 사업 보고에 이어 졸업생들에게 졸업장과 장학금 및 격려금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곡성지구위원회와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보건의료원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

튼튼한 구강건강 지킴이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 군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며 다양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원은 올해 8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보건교육 및 치아 불소 도포를 무료로 실시했다. 불소 도포는 고농도의 불소를 차아 표면에 직접 발라 충치를 예방하고 세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게 함으로써 치아를 보호하는 시술이다. 총치 예방 효과는 약 40~70%로 알려져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 도포 지원 외에도 틀니 살균 세척기 무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틀니 관리가 어려운 고령 주민들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틀니 살균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다. 현재 의료원과 육과 통합보건지소,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틀니 살균기가 설치돼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 건강 사업도 운영한다. 지역 장애인 시설인 삼강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검사와 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부터는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강 검진,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의 진료와 구강 질환 치료에 대해 지역 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순천시 내년 신입생 모집

순천시가 20일부터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과 인원은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 40명(청소년수련관), 중학교 1~2학년 40명(청소년문화의집)이다.

20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통해 1차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2차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최종 선발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한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접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어·수학 등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뉴스포츠·연극·코딩, 드론·음악·미술 & 만화 등 전문체험을 운영하며, 주말체험으로 예술·문화공연, 진로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원으로 캠프, 가족문화체험, 특강 등을 운영하고, 생활지원으로 급식·상담·건강검진·귀가차량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061-749-6612),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061-749-4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보성군, 72개 품목 선정

보성군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7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보성물 입점 업체(108개)를 대상으로 '1업체 1상품' 기준으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70개 업체에서 70개 상품(33개 품목)을 접수했다.

주요 답례품은 녹차, 키위, 꼬막, 녹돈 등 보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 70개와 보성물 모바일 쿠폰, 보성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총 72개가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을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역균형발전과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등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